■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 맞아 곳곳서 행사 풍성

책도 보고… 놀며 체험하며… 별빛 달빛 만끽

오는 5일 기념행사부터 책 축제·공연·전시 등 다채

가정의 달 5월이다. 각종 기념일이 모여있는 이달엔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잇따른다.

제101회 어린이날인 오는 5일에도 여기저기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기념행사, 축제, 공연 등 보고, 먹고, 즐길 거리들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이날 한라체육관에선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어린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모범어린이와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는 기념식 후에 다양한 만들기 체험활동과 민속놀이 한마당 등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날 제주학생문화원 일대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외잔디광장에서 각각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행복어린이 축제'를 연다.

제주별빛누리공원에선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광장에서 '별빛달빛 어린이축제'가 펼쳐진다. 시설관람은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기상이 맑을 경우 오후 8~9시 천체망원경을 통해 달을 관측할 수 있다.

제주시기적의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린이 책 축제'를 운영한다. 팝업북 만들기 등 독서와 연계한 체험활동부터 공연, 강연과 놀이까지 가족이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도립미술관은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미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을 선사한다. 우선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12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에게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도립미술관은 또 5일 어린이 관람객 대상 사탕 나눔 행사를, 6일엔 전시와 연계해 침여작가의 작품 제작을 직접 경험해 보는 '옮겨진 산수 유람기'를 운영한다.

제주현대미술관은 5일 낮 1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야외공간에서 AR존 체험, 테이블 인형극, 마술쇼 등을, 김창열미술관은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참여는 각 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공연도 있다. 5일 제주아트센터 무대엔 두 차례(오전 11시, 오후 4시) 돌하르방 홀로그램 퍼포먼스 뮤지컬 '스토니즈 더 어드벤처'가 오른다. 곶자왈을 배경으로, 설문대할망 설화를 각색해 제주의 색과 이야기를 입힌 뮤지컬이다. 유료며, 티켓 예약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6일(오후 2시·4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극 '모차르트와 떠나는 동물의 사육제'를 준비했다. 유료며, 사전 예약은 서귀포시 E-티켓에서 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 어린이날엔 버스킹

이달 3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정기공연 '귤림풍악' 선봬

제주목 관아 무료 야간 개장이 이달 3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야간개장을 지난해(2개월) 보다 확대 운영(6개월)해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월·화 제외)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야간개장 기간엔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야경을 배경으로 버스킹, 정기공연, 수문장 교대의식, 자치경찰 기마대 거리 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는다.

제주목 관아 버스킹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 오후 6시30분부터 관덕정 광장에서 어린이들로 구성된 탐라무예단과 마술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운영된다.

'귤림풍악'이란 이름을 달고 월 1회 정기공연도 펼쳐진다.

5월 첫째 주 토요일(6일)을 시작으로, 6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진행될 '귤림풍악'에선 제주도립무용단, 제주도립교향악단, 국악과 크로스오버, 클래식, 제주 전통공연, 대중가수 등 매월 다양한 공연 레퍼토리가 선보여질 예정이다. 첫 공연날인 6일(오후 5시30분부터)엔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 뮤지컬 갈라 콘서트와 마술공연도 예정돼 있다. 오은지기자

무형유산도 즐기며… '재미+교육' 잡는다

2023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 5~6일 민속자연사박물관서

올해 어린이날에 맞춰 열리는 '2023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은 어린이들에게 도내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재미와 교육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우리의 무형유산을 인식하고 옛 제주사람들의 삶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은 지난해 첫 선을 보이고 올해 두 번째 열리는 무형문화재 종합행사다. 무형문화재의 공연과 시연, 체험 등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축제다.

오는 5~6일 이틀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엔 도내 무형문화재 22개 종목(국가 지정 6, 도 지정 16)과 국내외 무형유산 2개 종목이 참여한다. 행사장에선 무형유산의 수호자인 전승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제주 민요 등 13개 종목은 전문가 해설과 함께 공연으로 접하게 되고, 갓일 등 9개 종목은 전승자의 시연(시음)과 전시로 진행된다.

판소리 초청공연과 터키식 커피문화, 전통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축하공연으로 제주출신 트로트 가수 양지은 씨(6일)와 국안인 송소희 씨(5일)의 무대도 예정돼 있다.

행사기간 먹거리 장터와 민속놀이 대전, 온고지신 원데이 클래스(펠트 모자 만들기, 과자집 만들기 등)가 운영되며, 행사장 내에선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황학주의 시詩 읽는 화요일 (17)

산지등대

고주희

바람이 허락하는 높이를 가진다면

가장 먼 곳의 바다가 되겠지

달빛 아래 잠시 교차하는 두 손, 서로의 이름을 바꿔 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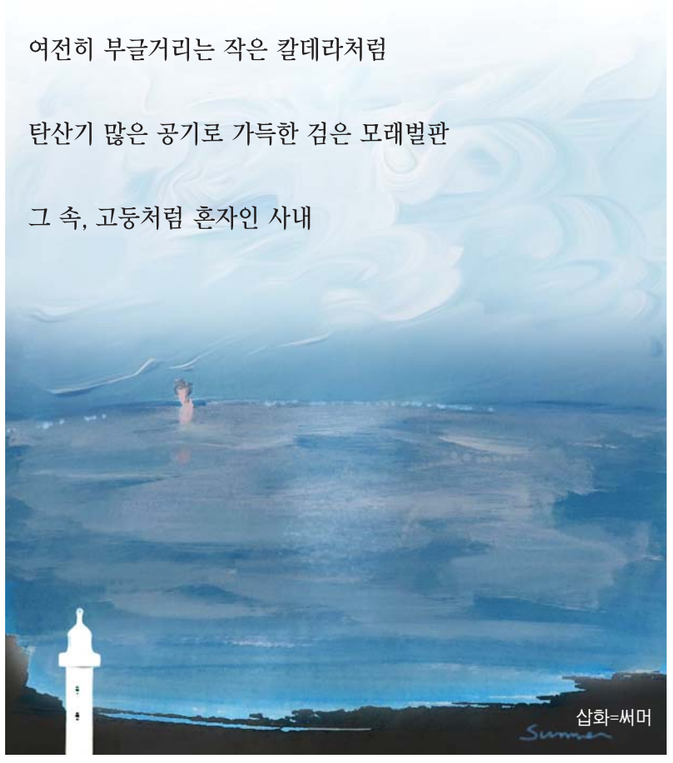
밀물과 썰물

그러다 당신이 가진 어둠을 알게 되겠지

여전히 부글거리는 작은 칼데라처럼

탄산기 많은 공기로 가득한 검은 모래벌판

그 속, 고둥처럼 혼자인 사내



시 '산지등대'에서 등대는 하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지명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나와 당신의 흔적이다. 밀물과 썰물은 달이 조정하지만, 몸의 밀물과 썰물은 나와 당신의 몫이다. 그것은 이름만 서로 다를 뿐 하나이며,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같은 분량으로 존재한다. 어쩌면 운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의 분화구로 남겨져 있으나 여전히 끓고 있는 가슴과 몸은 달빛 아래 잠시 교차하는 두 손의 느낌으로나 그려볼 수 있고, 누군가는 한쪽이 썰물일 때 한쪽은 밀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검은 모래벌판에 고둥처럼 혼자인 사내는 나라고 해도 되고 너라고 해도 되는, 누군가 먼저 와 있는 사람이었다가 늦게 온 사람일 것이나, 그 항적은 깜박거리는 등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다만, 태초 이래 모든 외로운 자들이 저 달빛을 밟으며 헤매었다는 사실만이 달밤에 얼룩져 있다. <시인>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JEJU MARKET

온라인 '제주도민장터' 7월 오픈

대정농협·대정마늘생산자협의회 **업무협약**

(주)제주도민장터 홍보모델 **문희경·진시몬**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가 만든 쇼핑몰, 제주도민장터 –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 (주)제주도민장터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 전화(02)3662-2650 · 팩스(02)3662-2642 · 이메일 : jejudominhwy@daum.net